



## 함께 키우고 함께 자라는 공동육아나눔터 여러분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



딩동댕~♪

이제 겨우 걸음마를 떤 아이부터 두 돌이 갓 지난 아이까지, 10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의 실로폰 앞에 올망졸망 모여앉아 눈빛을 반짝입니다. ‘저 실로폰 스틱이 누구에게 갈까?’ ‘혹시 이번에 내 차례일지도 몰라’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도 해보며 비장한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.

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,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되는 “도레미뮤직팡팡”의 모습입니다.



3살이 되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분위기지만 어린이집의 사건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불안하기만 한 요즘, 편안한 일상을 포기하고 매일 전투육아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엄마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동지를 만난다고 말합니다.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즐거운, 내 아이와 함께하는 값진 시간이지요.



선생님과 함께하는 40분간의 음악수업이 끝나면,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 손을 잡고 2층 공동육아나눔터로 향합니다. 그곳에는 수업에서 만나지 못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미 신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.

처음 만나는 엄마들도 ‘육아’라는 공통된 관심사에 어색함도 없이 서로 말을 건네며 금세 친해집니다.

어떤 반찬을 잘 먹는지, 수유는 언제까지 할 건지, 최근에 어떤 유아용품 브랜드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는지 등등 궁금한 얘기도 할 얘기도 너무 많아 한참을 얘기하다보면, 불현듯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생각나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.

하지만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. 처음 만난 친구와도 낯가림 없이 장난감을 주고받으며 놀고 역할놀이를 합니다. 불력을 자기키보다 더 높게 쌓고 무너뜨리며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지요.

이렇게 수업과 놀이공간에서 친해진 아이들과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가족품앗이 그룹을 만듭니다.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우리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않을까, 인터넷에서 본 오감활동을 막상 해주자니 집이 엉망이 될 것 같고, 아이 혼자서는 뭘 해도 심심해하고 재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 고민하던 엄마들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가족품앗이 활동을 통해 쉽게 고민을 해결합니다.

지치고 외로운 독박육아의 탈출을 원하신다면, 함께 키우고 함께 자라는 공동육아나눔터&가족품앗이와 함께하세요.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입니다.